

중앙아시아 고려인 설화의 수용 양상*

- 문금동의 『인정루』를 중심으로 -

강현모(전 한남대 강의교수)

〈목 차〉

- | | |
|---------------------|------------------------|
| 1. 서론 | 3. 중앙아시아 고려인 설화의 수용 양상 |
| 2. 소설 『인정루』의 설화적 구성 | 4. 결론 |

1. 서론

본고는 타지키스탄에 거주하였던 고려인 작가인 문금동의 소설 『인정루』의 설화적 구성과 중앙아시아 고려인 설화의 수용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조명희의 제자인 문금동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한 고려인 작가로, 고려인 문단에서 활동한 적이 없지만 『인정루』와 『아버지와 흥범도』 등으로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이루었다. 특히 1962년부터 1984년까지 22년간 자필로 써 내려간 『인정루』¹⁾는 정착과 유랑을 반복한 고려인의 삶처럼 17, 18세기의 조선을 배경으로 주인공 문옥산(용남)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이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1049413)

1) 문금동이나 『인정루』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타치야나 심비르체바·임경화와 김현주의 논문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어 분량을 고려하여 생략하였다.

소설은 방대한 분량과 다양한 설화들을 담아내며 고려 글로 쓴 고려인의 정체성 찾기와 자신의 증언 기록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소설 『인정루』는 고송무가 소련과학원 동방학연구소의 콘체비치 박사에게 받아 1990년 학계에 소개²⁾한 이후에 4편의 연구가 있다.³⁾ 최초의 연구로는 타치아나 심비르체바·임경화가 1986년에 문금동이 콘체비치 박사를 찾아가 부탁한 『인정루』 출판과 편지 내용을 소개하고, 작가의 삶을 아들 문 개라심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분적으로 밝혔다.⁴⁾ 그리고 『인정루』의 본격적인 연구는 3편 거듭 발표한 김현주의 연구이다. 김현주는 『인정루』가 이주와 유랑이란 과거 삶 양상을 재현 방식으로 흠어진 전통을 수집 보존하였는데, 이를 고려인 디아스포라로서의 전통 기억하기를 통한 자기 서술 방식이라 보았다.⁵⁾ 또한 등장인물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만들어낸 금기의 생성과 소멸의 금기 위반 양상에서도 자신의 언어를 지켜나간 작가의 자기 투쟁과 사회문화 투쟁으로서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정루』의 ‘고담’을 중심으로 주체의식과 문금동이 한국의

-
- 2) 고송무, 『소련의 한인들 : 고려사람』, 이론과 실천, 1990, 179면. “조명희 제자 가운데서 빛을 여태 보지는 못하였으나 혼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금동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1912년 연해주 뿌질곶계 촌에서 문친일의 아들로 태어나 조합의 청년학교를 나왔다. 조명희가 그에게 작가의 길을 권하도록 권고를 했다. 중앙아시아로 이주되어 온 뒤 여러 가지의 일을 했고 전쟁 후는 타슈켄트 시 부근 끼로브 명칭 골호즈에서 일했다. 1963년부터 타지스탄의 두산베에서 살다가 최근에는 타지스탄 기짜르 구역에서 살고 있다. 병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상태이나 장편소설 『인정루』와 실화 기록 『아버지와 흥범도』를 썼다.
- 3) 논문을 작성할 때 발표되어 보지 않았던 2021년에 발표한 김현주의 「문금동 소설 〈인정루〉에 나타난 가족 이별과 재회 양상에 관한 연구 - 재회 장면의 〈춘향전〉 변용을 중심으로」와 「소설 〈인정루〉의 고담(古談), 〈어부와 금붕어〉 연구 - 그림형제의 〈어부와 아내〉와 푸시킨의 〈어부와 물고기 이야기〉 변용을 중심으로 -」 등 2편의 논문을 더 있다.
- 4) 타치아나 심비르체바·임경화, 「고려인 작가 문금동과 그의 장편소설 인정루 소개 및 시론적 고찰」, 『한국학연구』 제35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 5) 김현주, 「문금동 소설 『인정루』 연구」, 『한민족어문학』 77집, 한민족어문학회, 2017. 문금동의 자전적 소설 『아버지와 흥범도』 역시 고려인 사회의 정신적 유산을 정리하는 작업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전통 설화들을 창의적으로 계승, 발전시켰는지를 살펴보았다. 고담에서는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설화를 각색하여 봉건신분질서를 비판하고 평등이란 사회적 가치와 가정의 행복이라는 개인적 이상을 실현하였다. 그리고 ‘웃음’과 ‘익살’의 ‘봉이 김선달 설화’를 일본 부자들에게 두만강 오리 떼와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김삿갓 설화’로 변용하여 반제국주의적 시각을 드러냈다고 보았다.⁶⁾

김현주는 한국 설화와 그 밖의 자료들과 『인정루』를 비교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인정루』는 구술 문학적 성격을 지닌 작품이다. 이런 점에서 『인정루』가 얼마만큼의 많은 설화들로 구성되었으며, 작가의 생활 터전인 중앙아시아 고려인에게 전승하는 구비설화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고는 문금동이 타지키스탄에서 쓴 소설 『인정루』의 설화적 구성과 중앙아시아 고려인 설화의 수용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소설에 수용된 설화 자료들을 검토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고려인 설화로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조사한 설화 자료를 비롯한, 우즈베크나 카작의 설화 자료들까지 포함하였다.⁷⁾

6) 전자는 김현주, 「문금동의 장편소설 『인정루』에 나타난 금기위반 양상에 관한 연구-과부(寡婦) 형상화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제77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8. 후자는 김현주, 「『인정루』의 ‘고담(古談)’에 나타난 한국 전통설화 변용양상에 관한 연구, 『어문학』 제142호, 한국어문학회, 2018. 12.

7) 키르기스스탄 조사는 2019. 8월 15-30일, 2020. 1월 2-13일에 하였다. 그리고 필자가 조사한 중앙아시아 자료로, 우즈베크는 2009. 4월 19-27일, 7월 7-21일, 2012. 10월 20-29일, 2013. 2월 19-27일이고, 카작은 2014. 7월 7-23일 조사가 있다. 그리고 『한국민속문화유산』 해외토대 조사의 일환으로 카작은 2012. 7월 19-26일, 키르기스스탄은 2012. 7월 27-30일 조사하였고, 『증보 한국구비문학대계』 해외편으로 우즈베크스탄은 2015. 2월 10-26일, 카자흐스탄은 2016. 2월 16-27일, 2016. 6월 20-7월 4일에 조사하였다. 이외에 이복규의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구전설화』(집문당, 2008)가 있다.

2. 소설 『인정루』의 설화적 구성

『인정루』에는 다양한 설화, 민요, 잡가, 속담, 격언, 고전소설 등을 차용하였다. 『인정루』에 수용된 설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소설의 서사구조의 뼈대를 만들도록 차용하거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액자형으로 차용하였으며, 서사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해 내용적 특징만 차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인정루』는 다양한 설화를 수용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였다.⁸⁾

2.1. 뼈대를 이루는 설화

도입 부분은 「호환당한 부모의 원수 갚기」 설화를 수용하여, 주인공 문옥산이

8) 설화의 이름은 필자가 구비문학을 조사하며 작품의 이름을 붙이는 방식에 따라 설정하였다. 그리고 고전소설에서 차용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인정루』의 서사구조에 수용한 설화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뼈대 설화, 「」 액자형 설화, 제목만-서사 전개를 위한 설화)

발단: 《호환당한 아버지의 원수 갚기》 / 어린 신랑(복진 며느리) / 정승 딸을 아내로 맞이해야 할 팔자 / 홀로 된 며느리 방을 지킨 시아버지(시아주버니)

전개: 《여자는 남》 / 산신령의 흥계 꾸미기 / 「서모의 간계」 / 바람난 아내 버릇 고치기 / 하룻밤에 머리가 하얗게 센 사람 / 불사약 구하기 / 「달래강 전설」 / 백두산 산신령 둔갑(허일을 죽임) / 행복은 돈보다 자식 / 귀신 변신담+신선담 / 인간을 구한 개(오수의 개 무덤) / 「차돌이와 거북이」 / 「호랑이와 식목으로 장사 키우기」 / 산삼 구하기

위기: 《상부할 팔자를 모면할 보쌈》 / 대호 꿈 / 「시어머니의 버릇을 고쳐 산 며느리」 / 조선 찌기(장인 골려먹은 사위) / 복진 며느리 / 저승 갔다 온 이야기, 구미호 / 상전을 골려먹은 하인 / 「물고기 잡은 영감과 노파(금 물고기)」 / 조선의 돈을 모은다면 / 불로초 구하기 / 「농락하려는 훈장을 혼내 시골 부인」 / 「도둑질 잘하는 사위 고르기」 / 「속이기 잘하는 사위」 / 저승 갔다 온 사람 / 독극물 마시기 / 모란의 간 연기(북두칠성의 유래담)

절정: 《암행어사 담》 / 사기로 얻은 벼슬(암행어사) / 파경노 / 인신 공희 / 「유증한 근」 / 기생 만들기를 거부한 분선 / 「두만강 오리 떼 팔아먹기」 / 「대동강 물 팔아먹기」 / 중성의 죽은 소 값 물어주기

결말: 《지혜로 죽음에서 살아난 벼들꽃》 / 호랑이와 식목으로 장사 키우기 / 복진 며느리(변형) / 장인 장가 들인 사위(시아버지 장가 들인 며느리)

고아가 되어 세파에 시달린 운명임을 예고하고 있다. 문옥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서당에서 놀이 행사로 기숙하게 되었을 때, 이를 알지 못하고 옥산을 마중 나갔다가 호식을 당한다. 옥산은 부모들이 호식을 당하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호랑이를 잡아 죽여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 그런데 부모가 호식당한 사건은 서당 선생님의 호의로 서당에서 성장하게 되지만, 문옥산의 떠돌이 삶을 예고하고 있다.

전개 부분은 「여자는 남」이란 설화를 수용하고 있다. 작가는 문옥산이 리 대감의 자부인 과부 초산과 정을 통한 후, 홀로 된 제수의 방을 지키는 시이주버니 때문에 생명을 도모하기 위해 도망친다. 그런데 서손인 시이주버니는 어머니의 삶을 생각하고 홀로 된 제수가 안타까워 흰 등가머를 태워 친정으로 돌려보낸다. 친정에 도착한 리 대감의 자부 초산은 화란과 함께 문옥산을 찾아 나선다. 「여자는 남」은 초산이 문옥산과 결합하여 셋째 아이를 낳다가 죽은 뒤에 전개되는 사건이다. 어느 날 아들 이남의 친구 차돌이가 놀러 왔다 마판 날에 짝혀 죽자 숨기고 살아간다. 문용남은 재혼한 평양 기생 매월에게 차돌이 죽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전개 부분에는 「여자는 남」이란 설화를 뼈대로 차용하면서, 그 중간에 많은 설화들을 수용하고 있다. 어느 것은 즐거움을 주기 위한 삽화로, 어떤 것은 사건의 전개를 위한 삽화로, 또 어떤 것은 미래의 사건을 복선화하는 삽화로 수용하였다. 이들 설화들은 원래 의미를 그대로 차용하기보다 작가가 작품의 서술을 위해 변형하여 수용하고 있다.

위기 부분에는 「상부할 팔자를 모면할 보쌈」 설화를 뼈대로 수용하고 있다. 문용남(옥산)⁹⁾은 「산신 변신담」과 「주인을 구한 개」 설화를 통해 살아나서, 산수 감사로 들어가 선생을 하였다. 다시 결혼하는 날 박봉수의 박해로 버들꽃을 잃어버리고, 산수를 헤매다가 산삼을 얻고 이곳을 떠났다. 문용남은 단옷날 수원 땅에 들어왔다가 건강하지 못한 김 부자의 딸 백화를 만나게 된다. 그 만남의 계기는 김 부자가 상부할 팔자인 딸 백화를 위해 보쌈을 계획하였기

9) 이 부분을 경계로 주인공의 이름이 문옥산에서 문용남으로 변경된다. 본고에서는 이후 논지를 전개할 때 문용남으로 통일하여 진술하겠다.

때문이다. 용남은 김 부자의 행동을 유의하던 중에, 딸 백화를 안채로 불러들인 것을 보고 보쌈을 대비하였다. 용남은 보쌈 온 백정을 죽이고 변장한 뒤 보조하는 종들과 백정의 시신을 수장하고 떠난다. 이 위기 부분에서도 많은 설화들이 삽화 형태로 차용하여 길게 서술되고 있다.

절정 부분에는 「암행어사 담」을 차용하고 있다. 문용남은 죽게 된 백화를 산삼으로 구한 뒤 모란의 도움으로 김 부자의 모계를 벗어나 서울로 올라온다. 이때 과거를 보는데, 시험 보는 날 문용남은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시험지를 훔쳐 제출하고 암행어사를 제수 받게 된다. 문용남은 암행어사가 되어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건들을 해결한다.¹⁰⁾ 처음 처리한 사건은 뱀에게 처녀를 받치는 「인신 공회」이다. 그리고 장인인 김 부자의 죽음과 그 재산을 정리하고, 위기 부분에서 언급하였거나 새로운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다. 「암행어사 담」은 민정에 대해 많은 내용을 들어내며 평화로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곳에서도 많은 설화들이 수용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어사의 역할은 김 부자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끝난다.

결말 부분에는 전개 부분에서 수용한 액자형 설화를 구체화하고 있다. 문용남이 어사를 마치고 돌아와 살 때, 백화가 둘째 아들 낳다 죽게 되자 도둑들에게 납치되었던 버들꽃이 등장한다. 버들꽃은 「여자를 차지할 사람 정하기」 놀이를 도둑들에게 진행시켜 서로 죽이게 만들고, 마지막에 남은 박주사의 아들 못난이 박봉수를 죽인다. 그는 혼자 아들 금봉을 낳아 기르게 된다. 아들 금봉은 「호랑이와 식목하여 장사 키우기」 삽화처럼 범을 키워 타고 다니며 자라나는 나무를 뛰어넘어 비범한 아들로 성장한다. 이런 금봉이 문용남의 딸 '잇뎌'를 납치하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이곳에서도 「복진 며느리」와 「장인 장가 들인 사위」 설화를 차용하여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10) 문용남이 어사가 되어 돌아다니던 곳은 수원의 김 부자 맥을 제외하고 북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작품의 시작 배경이 평양 인근이었고, 작품의 말미도 서울에서 북쪽에 있는 고장이다.

2.2. 서사구조의 진행을 서술하는 설화

소설 『인정루』에는 뼈대를 이룬 설화를 보완하며 사건의 전개를 위해 많은 설화를 수용하고 있다. 소설은 뼈대를 이룬 설화로 개괄적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수용한 다양한 삽화들로 뼈대를 구체화하고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이때 수용된 설화들은 그 내용의 일부를 축약하거나 변형하여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발단 부분에서는 고아가 된 어린 용남이 「여자로 남」이란 설화로 연결되기 위해 결혼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 삽입된 설화들로는 「복진 며느리」, 「정승 딸을 아내로 맞이해야 할 팔자」, 「홀로 된 며느리 방을 지킨 시아버지」가 있다. 리 대감은 어린 독자로 후대를 잇기 위해 복진 며느리를 얻으려고 집을 나섰는데, ‘물바가지에 버들잎을 띄운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 며느리로 삼는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어린 신랑이 일찍 죽는 바람에 청상과부가 된다. 이때 등장한 「정승 딸을 아내로 맞이해야 할 팔자」 설화는 내용이 정승의 딸에서 과부 며느리로, 정승의 집에 들어가는 방법도 할머니에서 딸로 변이된다. 그리고 수용한 「홀로 된 며느리 방을 지킨 시아버지」 설화에서는 시아버지 대신 시아주머니가 등장한다. 그런데 첩의 자식인 시아주머니는 어머니의 고생을 생각하며, 흰 등가마를 태워 제수를 친정으로 보내준다.

전개 부분에도 다양한 설화들이 등장한다. 우선 「산신령 흉계 꾸미기」는 문용남이 초산과 화란을 만난 뒤 밤에 백두산 산신령으로 위장하여, 자신을 노복에서 풀어 주게 하고 박진사의 아들 생남과 화란을 결혼시킨다. 문용남은 초란이 죽자 두 아들을 어렵게 키우다가, 기생 매월과 결혼한 뒤에 차들을 죽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를 기화로 저지르는 매월의 부정을 드러내기 위해 「바람난 아내 버릇 고치기」가 있다. 그 설화 안에 「하룻밤에 머리가 하얗게 센 사람」을 수용하고 있다. 또 「백두산 산신령의 둔갑」 삽화를 수용하여 매월과 허일의 부정을 확인하고, 매월에게 허일의 시신을 옮기게 하여 부정을 응징한다. 그리고 「행복은 돈보다 자식」 설화를 수용하여 기생첩 매월에게 고생하는 소중한 두 아들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문용남은 차들을 죽인 비밀이 매월에

의해 마을 사람들에게 탄로 되어 갇히게 되자, 「귀신으로 변신 이야기와 신선 이야기」를 수용하여 문용남을 득천할 신성한 인물로 장례 속에 넣어 물에 띄워 보내도록 한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기생 매월에게 민속의 「회수식(조리돌리기)」를 진행한다. 이때 일남은 「주인을 구한 개」를 수용하여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다만 소설에서는 물에 띄워 보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변용하고 있다. 이처럼 발단 부분에서는 문용남이 죽음을 모면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 소설적 구성을 마련하게 된다.

위기 부분에서는 「저승 갔다 온 이야기」와 「구미호 이야기」가 여러 차례 반복하며 전개하고 있다. 문용남은 보쌈을 잘 대처한 뒤에 함흥에 가서 「조전 짝기」로 욕심이 많은 여관 주인을 속여 돈을 빼앗고, 「복진 머느리」를 수용하여 빼앗은 돈으로 서울 인근에 땅을 사서 농장을 짓고 아이들을 교육한다. 뒤에 문용남은 앞에서 죽게 된 부인 백화를 얻은 산삼으로 낫게 하는 데, 이때 「저승 갔다 온 이야기」를 수용하여 김 부자에게 살아온 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수중에 묻힌 자신이 살아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상진을 골려먹은 하인」의 뒷부분을 변용해 수용하고 있다. 이는 문용남이 저승에 갔다 왔다는 것과 수중에 빠져 죽었다는 점을 고려한 변용이다. 그런데 김 부자의 곁에 있던 의사는 사실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수중고혼이 되었으면 시신이 썩어 돌아올 수 없다며, 「구미호 이야기」를 차용하여 대응하게 된다. 그래서 소설에는 두 설화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대응 관계를 유지하며 전개되고 있다. 문용남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모란은 어머니에게 독극물이 든 술에 관해 듣고, 「독극물 마시기」 설화를 수용하여 문용남을 돕게 된다. 의사와 김 부자는 문용남이 도망하지 이를 빌미로 모란을 죽이기 위해 「모란의 간 연기」를 수용하는 데, 전형적인 「북두칠성 유래담」이다. 즉 모란은 개의 간으로 대신하지는 백정 부인의 기지로 살아나게 된다. 모란은 백정의 동생에게 강간당하고 어머니를 만난 뒤, 문용남을 만날 수 있는 북쪽으로 이동하며 고난을 겪는다. 그가 아기를 출산하는 고난 중에 「우연하게 잡은 호랑이」 설화를 수용하고 있다.

절정 부분은 문용남이 암행어사가 되어 활동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수용된

설화들은 어떤 형식의 설화라도 소설의 서사구조에 직접적인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용된 설화가 암행어사로서 문용남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으로 개별 삽화 형태로 수용되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용남은 과거시험을 준비하였지만, 시험 당일에 시험 보기보다 글을 잘 쓸 만한 사람에게 잠이 오는 약을 마시게 하여 시험지를 빼앗아 대신 제출하는 「사기로 암행어사 되기」를 수용한다. 문용남은 사기로 암행어사가 되었지만,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한다. 첫 번째로 인신 공회를 하는 마을에서 암행어사의 능력을 보여준다. 주인과 가족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은 혼인잔치를 보고, 처녀를 바치는 마을 제사에 그 집이 배당된 것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문용남은 관청에 연락하여 사냥꾼을 준비시키고, 시간에 맞추어 대매(뺨)를 확인하고 썩 죽여 그 집 딸을 구한 뒤 사냥꾼과 결혼시켜 진짜 잔치가 되게 한다. 그리고 문용남은 처가의 비밀을 확인하지만 암행어사 출도 없이 진행된 뒤, 모란을 여관에서 만나게 된다. 모란이 여관에 머물게 된 것을 최치원의 「과경노」를 변용하여 수용하고 있다. 문용남은 과경노가 된 모란을 상처한 평양감사 리일심과 연결시키고, 어머니와 만나게 해 준다. 또 평민 처자를 기생으로 만들려던 회령부사를 파면시킨 「기생 만들기를 거부한 분선」, 종성의 부잣집에서 가난한 집 딸을 빼앗으려 하였던 「종성의 죽은 소 값 물어주기」 등도 기존의 설화들을 수용하면서 암행어사 담의 내용을 풍부하게 전개하고 있다.

2.3.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액자형 설화

소설에는 서사구조의 진행과 거리를 두고 있는 삽입된 독립적 설화들이 보이고 있다.¹¹⁾ 이 설화들은 작가가 나름대로 소설 진행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였겠지만, 작품에서 빠져도 소설의 전개에 문제점을 들어내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독자나 작중인물들에게 소설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역할을 수행

11) 수용된 액자형 삽화도 소설의 서사구조를 진행하는 설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이 독립적이고, 앞뒤로 연결되지 않는 삽화만을 이곳에 포함시켰다.

하고 있다. 이에 속하는 설화들은 서사 공간이 넉넉한 전개, 위기, 절정 부분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개 부분의 자료로, 제비로 의인화하여 수용한 「서모의 간계」는 상처한 문용남이 평양 기생 매월의 계략으로 작처하게 되었을 때, 문용남의 아들들이 당할 애환의 현실을 암시하는 장치이다. 그리고 국내의 구비설화에서 발견되지 않는 「호랑이와 식목하여 장사 키우기」 설화는 무가 「제석본풀이」의 시작과 비슷하다. 구대 독자의 아들이 장가를 가서 수태시키지 못하고 죽자, 스님이 그 과부를 보쌌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을 호랑이에 태우고 길 양쪽에 심은 나무에 줄을 매달아 매일 떨어뜨리게 하여 훌륭한 장사로 키웠다는 내용이다. 이 삽화는 소설의 맨 뒤에 등장하는 버들꽃의 아들 금봉의 성장을 위한 복선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소설 구성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수용된 작품일 수 있다. 다만 전개 부분에서는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달래강 전설」이나 「차돌이와 거북이」는 소설의 전개 양상과 직접 관련을 갖지 않는다. 「달래강 전설」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한국적인 도덕에 맞지 않는다고 의식하여 등장인물도 남매가 아니라 사촌남매로 변형되어 있다. 「차돌이와 거북이」는 문용남이 산수 감사에 들어가 서당 선생님을 하고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을 불러 들여 구술한 설화이다. 주인의 아들이 차돌은 가난한 친구인 거북이를 살리기 위해, ‘거북이가 금내를 잘 맡는다’라며 감춘 아버지의 기물을 찾게 한다. 찾은 대가로 주인의 셋째 딸과 결혼을 요구하는데, 「구렁덩덩 신선비」 설화의 방식을 수용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인 옥쇄 찾기는 도적의 이름이 나무가 부딪히는 ‘이국, 찌국’으로 변이 되어 있다. 세 번째 사건은 「괄시받은 셋째 사위의 보복」을 수용하여 흥미를 더하고 있다. 네 번째 사건인 「중국 황제의 옥새 찾기」는 차돌이 거북이의 코를 물레가탁으로 지지놓고 ‘코가 지지져 더 이상 내를 맡지 못한다’라며 사건을 맡지 않았다. 그 후부터 시름을 놓고 평생을 살았다고 한다.

위기 부분에도 소설의 서사구조 전개보다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설화가 등장하고 있다. 「시어머니의 버릇을 고쳐 산 며느리」는 문용남이 함흥

지방으로 유랑을 갔다가 여관 주인에게 들은 이야기이고, 「조전 찌기(장인을 골려먹은 사위)」는 함흥에서 여관 주인에게 들려준 이야기이다. 앞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쫓아내자, 인근에 사는 집의 딸이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의 버릇을 고쳐 살았다는 내용이다. 뒤는 장인을 속이는 내용을 변용하여, 여관 주인에게 귀중한 물품이라 함부로 엿보아서 안 된다는 것으로, 소설의 서사구조와 연관성이 있으나 명확하지 않다.

수원에서는 푸시킨의 글에 등장하는 「금 물고기」가 좋은 옛말 「물고기 잡이 노파와 영감」이라며 구술하고 있다. 이 설화 속에는 「조선의 돈을 다 모은다면」이란 민요를 삽입하여¹²⁾ 전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설에서 노파가 영감에게 요구하는 것은 첫째, 살림살이. 둘째 논밭과 노복, 셋째 여왕 되기, 넷째 천생배필 호남자 요구하기 등이다. 그런데 넷째의 요구를 물고기가 들어주지 않으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농락하려는 서당 선생을 골탕 먹인 부인」, 「도둑질 잘하는 사람 사위 삼기」, 「속이기 잘하는 사람 사위 삼기」 등도 소설에서 고담 「훈장답지 못하여 나귀절에 경 떨어뜨리는 이야기」, 새 고담 「서울 사람이 시골로 내려와 장가들어 장인을 골탕 먹은 사위」, 잡담 「붓기 잘하는 총각」 등의 제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독립적인 삽화들도 시대적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 조금씩 변용되면서 서사구조의 진행보다는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절정 부분에서는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작품으로 「베니스의 상인」과 유사한 「유즘 한 근」을 수용하고 있다. 중국으로 장사를 따라다니던 한 사람이 독립하면서 돈을 차용하였는데, 차용증에는 기한이 지나면 유즘 한 근을 떼기로 작성되어 있다. 이 차용증은 돈을 받기보다 그 사람을 죽이려고 작성한 것으로, 일부러 기한 내에 갚지 못하도록 함정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를 간파한 어사 문용남이 리일심 평양감사에게 처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12) 이 노래는 우즈벡과 카작에서 듣지 못하고,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어 선생님인 이 세베틀리나(79, 여,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곡사르 단지 23동 29호 자택, 2020. 1. 12)에게 들었던 연극성이 강한 노래이다.

한편 국내의 「봉이 김선달」 이야기가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에게 「김삿갓 설화」로 변이 되어 있다. 이는 문용남이 회령에 갔다가 외로워하는 분선의 할머니를 달래주기 위해 구술한 작품들이다. 작가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김삿갓이 심술이 많아 삿갓을 쓴 것이라 한다. 그리고 국내의 「봉이 김선달」 이야기는 땅을 팔아먹은 장소가 평양 인근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김삿갓 설화」에서는 두만강 일대로 나타난 경우도 있다.¹³⁾

3. 중앙아시아 고려인 설화의 수용 양상

『인정루』의 서사구조는 작가의 말처럼 조선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전개하고 있다. 소설은 전체적 보았을 때 설화들을 모아 재구성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¹⁴⁾ 소설에 수용한 다양한 설화들은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사이에 전승되는 자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료들이 더 많이 있다. 그 이유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설화 조사에서 조사자, 조사 시간과 장소가 한정되어 있으며, 문금동이 『인정루』를 쓴 타지키스탄에서 조사하지 못한 데 기인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승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설화들이 『인정루』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그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3.1. 현실적 방향으로 변형 수용

중앙아시아 고려인 설화는 설화의 허구 상상력 부분을 생략하고 사실 정보 부분만 구술하는 경우가 많다. 우즈베크이나 카작의 조사에서는 이렇게 구술할 때 사실담으로 여겨 국내조사 방식을 따라 녹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설화 조사에서는 이런 구술 방식이 어찌면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13) 『증보 한국구비문학대계』 해외편(우즈베크스탄, 2015) 시온고 33, 「이봉선: 두만강 물을 팔아먹은 김삿갓」

14) 설화의 분량은 전체의 1/4 정도이고, 소설적 설화까지 합하면 1/3 정도를 이룬다.

삶 방식에 따라 설화에 대한 변화된 인식의 태도가 아닐까?15) 그래서 사실적 정보로 끝난 자료들도 하나의 설화 유형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은 『인정루』를 읽으면서 더욱 굳어졌다.

중앙아시아 고려인 설화에는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나 자린고비인 꼬쟁이에 관한 「물고기는 밥도둑」, 어린 신랑과 결혼한 「어린 신랑의 재치」 등이 많이 채록된다. 그런데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물고기는 밥도둑」, 「어린 신랑의 재치」라고 물었을 때, 설화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사실 정보 부분만 언급하고 구술을 그치는 경우가 많다. 즉 나이가 많은 아버이를 지계(수레)에 태워 깊은 산속으로 가져갔다고 하거나, 물고기 장사가 물고기를 팔려고 다녔으나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사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어린 신랑과 결혼하였다는 내용만을 구술하고 만다. 이렇게 구술을 마쳤을 때 「고려장을 한 이유」, 「물고기를 사 먹지 않은 이유」, 「어린 신랑과 결혼한 사람」 정도의 제목이 적당하다. 그런데 고려인들은 이를 전해온 이야기이라며 구술하고 있다. 『인정루』에도 이런 양상이 보이는 「복진 며느리」에 관한 삽화가 세 번 나온다.16)

첫째, 도입 부분에서 리 정승이 자손을 얻지 못하고 아들들이 죽자, 9살 먹은 어린 아들을 장가보내려고 며느리를 얻기 위한 과정에 나타난다. 이 부분은 「복진 며느리」와 「어린 신랑」이 결합되어 있는데, 삽화는 「어린 신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야기는 리 정승이 ‘복진 며느리’를 구하려고 떠나 길가의 우물에서 물 길는 처자에게 물을 요구하자, 처자가 그릇에 물을 뜬 다음에 나그네의 모습을 보고 버들잎을 훑어 넣었다는 ‘재치(지혜) 있는 여자’로 변이 되어 있다. 그런 재치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9살 먹은 어린 아들의 아내를 삼는다. 그런데 ‘복진 며느리’를 얻은 결과가 어떻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15) 2019년 8월 키르기스스탄 1차 조사 때는 우즈베크이나 카작에 비해 설화를 많이 조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끝난 이야기조차 수집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 이것이 고려인의 설화로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6) 첫째는 『인정루』 1권, 54-57면. 둘째는 『인정루』 3권, 408-417면. 셋째는 『인정루』 9권, 7-45면.

않다. 다만 그 여자는 어린 신랑인 남편이 죽고, 문용남을 만나게 된다.

둘째, 문용남이 원산에 갔다가 사기를 쳐 욕심 많은 여관 주인에게 빼앗은 돈으로 서울 근처의 땅을 장만할 때 등장한다. 한 부자는 아들의 행동을 보고, 자신이 죽은 뒤에 많은 재산을 보존할 방법으로 '복진 며느리'를 얻어 재산의 관리를 맡긴다. 그런데 며느리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 횡포가 심한 남편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만다. 그래서 그 모든 땅을 문용남이 샀다는 내용으로 끝나고 '복진 며느리'에 관한 내용이 더 이상 전개가 없다.

셋째, 결말 부분에 버들꽃의 아들 금동의 아내 얻기에 나타난다. 『인정루』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천하절색의 미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금동의 아내가 될 '복진 며느리' 혜숙은 예쁘지 않고 가난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이야기 전개상 일반적인 '복진 며느리 형¹⁷⁾의 모습을 띠고 있다. 즉 예쁘지 못한 혜숙은 신랑 금동에게 버림을 받았다가 다시 만나게 되고, 그의 타고난 복 때문에 잘 살았다는 요인을 갖고 있다. 그런데 금봉은 그녀를 버리거나 냉대하지 않고, 곧바로 아내로 받아들인다.

이처럼 소설에는 「복진 며느리」 삽화를 수용하였으나, 이곳 고려인들만의 사회적 여건인지 모르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변모되어 있다. 첫째 이야기에서는 복진 며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수용하였으나, 어린 신랑이 일찍 죽는 바람에 그 여자의 복진 운명을 활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둘째 이야기에서는 복진 며느리를 통해 많은 재산을 유지시키려고 하였으나, 남편의 횡포를 견디어 내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남편에게 땅문서를 주고 떠난다. 더구나 문용남에게 전지를 마련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복진 며느리」 설화의 뒷부분을 수용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셋째 이야기는 주인공인 여자가 예쁘지 않고 가난하여 남편에게 구박받거나 버림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런데 금동은 아버지의 결정에 아무런 반대도 없이 그녀를

17) 「복진 며느리」 설화는 신분적 제약 때문에 구박을 받고 쫓겨나 새로운 남자를 만나 살다가, 옛날 남편이 거지로 나타났을 때 현재의 남편을 버리고 전 남편에게 돌아가서 평생을 살았다는 내용이다.

천생연분의 배필로 받아들임¹⁸⁾으로 「복진 며느리」 유형이 완성될 수가 없었다.

작품에 수용된 설화들 중에는 고려인들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설화로는 「산삼 구하기」, 「불로초 구하기」 등이 있다. 소설에서는 이들 설화들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서사 전개에 필요한 현실 정보 부분만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설화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¹⁹⁾ 작가는 자신이 생각한 구조적 전개를 위해 설화의 표면적인 내용이나 현실적인 이미지만을 수용하여 서술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수용된 설화의 서술 내용은 작중인물이나 분위기에 따라 중단되거나 작품적 상황에 따라 변모되고 있다.

3.2. 전통적인 설화의 수용

『인정루』에는 전통적인 설화들을 많이 수용되어 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한국 설화들을 전승시키며 민족적 정서를 이어왔다.²⁰⁾ 이런 점은 『인정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인정루』에서 수용한 전통적인 설화는 대개 액자형을 이루며, 소설의 서사구조의 진행보다 독자에게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설화적 장치로 보인다.

『인정루』에 수용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전통적인 설화로는 김삿갓의 「대동강 물 팔아먹기」, 「백두산 오리 떼 팔아먹기」 등이 있다. 김삿갓에 관련된 이야기는 한국에서 봉이 김선달 이야기로 전승되어 왔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에게는 김선달과 김삿갓 이야기로 나누어져 전승되고 있다. 현재 김삿갓에 결부된 설화가 27편이고 봉이 김선달에 결부된 이야기가 18편이 조사되었는데 다음과

18) 이는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에게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19) 작가의 상상력에서 창작되었는데, 연구자가 기존의 설화적 특징과 결구한 작품으로 설정했을 수도 있다.

20) 강현모, 「우즈베크 고려인 구비설화의 전승내용과 의미」, 『비교민속학』 51집, 비교민속학회, 2013. 8. 151-155면.

같다.

봉이 김선달 이야기 : 날아다님, 당나귀를 돌려 먹기, 외상값을 주인의 부인에게 주기, 술타령, 공짜로 먹기(갓이오), 가난한 여자를 버리기, 갓이오, 새 줌 치마로 덮어주오, 학동을 먹어주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다, 귀중한 충고, 쓸쓸한 강산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한양 사람 혼내주기, 송장 살리기, 상인 살리기, 대동강 팔아먹기, 거짓말에 대한 댓가, 가족 등

김삿갓 이야기 : 구렁 물 팔아먹기, 어름 판 팔기, 담배 한 대로 서울 갔다 오기, 누워서 먹기, 공짜로 먹기(갓이오) 쥐약이라고 속여팔기, 손녀들 두드리기, 당나귀 죽어 울고 부인네 죽어 춤추기, 농부를 도와주기, 두만강 물 팔아먹기, 작은 논을 팔아먹기, 대동강 물 팔아먹기, 솥을 씻기, 바다를 팔아먹기, 하교 나서 씻게, 이 불 끄고, 등

중앙아시아 고려인 설화에는 김삿갓이나 김선달의 설화 제목이 거의 비슷하게 결부되어 있다. 내용의 확실한 차이는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때 확인 가능하지만, 결부된 이야기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이것으로 볼 때 김선달의 이야기가 언제부터 김삿갓 이야기로 변형되어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즈벱에서 1960년대 조사된 자료를 보면, 봉이 김선달 이야기가 10편이고 김삿갓 이야기는 1편만 보고되었다.²¹⁾ 그런데 2005년 이후에 조사된 자료에서는 김삿갓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조사되었다. 김선달 이야기는 우즈벱의 시온고에 사는 이봉선과 카작의 알마타에 사는 박 이반, 한철주의 구술 자료가 있다.²²⁾ 그 밖의 구술자들은 김삿갓의 이야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즈벱 시온고 마을의 심 이반과 황만금 마을의 황 안드레아 경우에는 김선달과 김삿갓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21) 이복규, 앞의 책, 자료 편 참조.

22) 이봉선은 2009년 1편, 2015년 4편을 김선달로 구술하고 있고, 박 이반은 2013년에 구술하였다. 한철주는 김선달 2편, 김삿갓 1편을 구술하고 있다. 이봉선의 경우에는 김삿갓에 관해 3편의 작품도 구술하여 주었는데, 2015년 조사 때를 고려하면 후대에 책을 통하여 이야기를 습득한 것 같았다.

봉이 김선달은 옴팡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조사자 : 그 사람이 더 똑똑해요.] 더 경사 난 사람이야. 김삿갓이란 사람은 그저 뒤에 가면 사람 골을 빼어먹고, 그래 봉군은 봉선달이란 사람은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었어. 똑똑한 사람이여.²³⁾

(김삿갓): 조금 무식한 사람이 된 데는, 조금 연애한 사람이지.(웃음) 그래 그렇지. [조사자 : 연애요?] 여자하고 연애한 사람이지. [조사자 :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런 짓 하고 확실하고 도킹하고 그저 이렇게 땡기며, 같아도 김삿갓이, 아 우가 삿갓, (러시아어) 김삿갓이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었지. [조사자 : 김삿갓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엇 무슨.] 다 그것이 옛날 말야지. 그런 사람이지. 야, 요 고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대체 상껏 먹으면 어찌 되겠는가 하고, 대체 상 떡 못 올려놓고 이 고기를 혼자 먹지. 그런, 그런 사람이지. 이것 김삿갓이란 사람이.

(봉이 김선달): [조사자 : 남기, 봉이 김선달은요?] 김선달으르는 선달이라 하면 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지, 선달이 건달이, 그 그런 탓으로, 좀 요새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그 그런 사람들이여. 김삿갓이, 김선달이, 아부과캇새, 나쓰라진 한 군데 모셔 놓으면 서로 니것거리만, 그것 그 사람들을 다, 아 이래 내놓을 것은 이 군중들이, 군중들이 저란 무슨 하나님처럼 봐. 저건 우리 도바, 돌봐줄 것, 그것 믿음에 그런 사람들이지.²⁴⁾

위에서 김선달의 이야기는 좀 해학적인 내용이 많고, 김삿갓의 이야기는 사기를 치는 내용이 많다고 한다. 실제로 구술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볼 때 김삿갓이나 봉이 김선달 이야기에서 뚜렷한 차이를 찾을 수가 없다.²⁵⁾ 다만

23) 심 이반(82, 남) 「김삿갓보다 똑똑한 봉이 김선달」, 우즈벡 타슈켄트 주 시온고 마을, 심 루다 맥, 2009. 7. 13.

24) 황 안드레이(70, 남) 「김삿갓과 김선달」, 우즈벡 타슈켄트 주 황만금 마을, 조루트밀라 식당, 2009. 7. 14.

25) 중앙아시아에서 조사된 자료들을 보면, 두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공짜로 먹기인 '잣이오, 대동강 물 팔아먹기' 등은 두 사람 모두에게 결부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에게는 김삿갓보다 봉이 김선달이 더 능력인 인물로 인식되고 있다. 즉 고려인들은 봉이 김선달을 우즈벡에서 나스레딘 호자에 해당하는 해학적인 인물로 보고, 김삿갓을 사기꾼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김삿갓이 양반 출신인데 비하여 봉이 김선달은 중인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변이 된 것 같다.

이른 시기에 조사한 자료는 김선달의 이야기가 많았고, 늦은 시기에 조사한 자료에는 김삿갓의 이야기가 많아졌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 변화와 신분적 차이로 사기꾼 이야기의 주인공이 김선달에서 김삿갓으로 변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²⁶⁾

『인정루』에 등장하는 김삿갓에 관한 2편의 이야기는 중앙아시아에서 구전된 설화 내용보다 상황과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양적으로 늘어났다.²⁷⁾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구전설화의 내용은 다른 민족들과 교섭하며 살아오면서 전통적인 내용이 망각되어 더욱 짧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려인 설화들은 그 내용이 한국에서 전승되고 있는 설화들의 뼈대만을 수용할 정도로 빈약해진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인정루』에 수용된 김삿갓의 이야기는 작가의 상상력과 시간 진행에 따라 서술됨으로 길이와 내용이 확대되었으나, 이야기의 서사구조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삽화들은 소설에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으로 중요한 서사 모티프가 아니기 때문에 양적인 증대가 소설의 서사구조 진행에 별 의미가 없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김삿갓 이야기에서 오리 떼를 팔아먹은 곳으로 대동강과 두만강을 지정하고 있다. 두만강은 고려인들에게 한반도의 경계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²⁸⁾ 이런 점에서 작품의 의미는 국가가 패망한 사실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일본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민족적 자존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사기의 대상으로 일본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설화를 수용한 자료들도 그 내용이 작가의 상상력에 따라 다양하게

26) 그런데 인정루』 7권-8권 1984년에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이런 변화되는 시점에서 수용되었거나, 두 가지의 내용이 따로 전승되었는지 앞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7) 전자는 『인정루』 7권 466-490면이고, 후자는 『인정루』 7권 501-8권 49면까지 이다. 그리고 그와 결부된 이야기들이 전자는 7권 493-495면, 후자는 8권 49-52면까지에 서술되어 있다.

28) 이성계가 두만강을 팔아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선의 패망을 말하는 것 같다.(이봉선, 「두만강을 팔아먹은 이성계 1」, 우즈벡 타슈켄트 주 시온고 마을, 2015. 2. 16.)

변모되어 있다. 「달래강 전설」²⁹⁾의 경우 근친상간이라 내용을 차용하였지만,³⁰⁾ 중국을 배경으로 사촌 남매로 변이 되어 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버릇을 고쳐 산 며느리」³¹⁾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설화들이 국내 설화의 구조조차 제대로 전승하지 못하고 있다.³²⁾ 시집은 며느리에게 트집을 잡아 쫓아내는 시어머니를 보고, 이웃에 사는 한 처녀가 그 집으로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의 버릇을 고쳐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시킨이 지었다는 「금 물고기」³³⁾도 중앙아시아 고려인 설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³⁴⁾

29) 『인정루』 1권, 279-282면.

30) 박 이반(82, 남) 「달래강 전설」 카작 알마티 카자흐대학 연구실, 2012. 7. 20., 강 안나 보리소브나(86, 여) 「달래강의 유래」 우즈벡 타슈켄트 시 안홍르노 구역, 2015. 2. 13., 이봉선(85, 남) 「달라고나 해 보지」 우즈벡 타슈켄트 주 시온고 마을 자택, 2015. 2. 16.

31) 『인정루』 3권, 352-366면.

32) 임 류드밀라(77, 여) 「시어머니의 버릇을 고친 며느리」 키르기스스탄 추이 주 특목 고려인협회 사무실, 2020. 1. 8., 김 소야(62, 여) 「시어머니의 버릇을 고친 며느리」, 키르기스스탄 추이 주 갈라발따 푸쉬키나 11-2 김 류바 집, 2019. 8. 18., 이봉선(76, 남) 「시어머니를 골탕 먹인 며느리」 우즈벡 타슈켄트 주 시온고 마을 자택, 2009. 7. 13. 첫째는 앞에서 전통적인 설화의 내용을 수용하다가 뒤에서 시집을 가서 지혜로 잘 살게 된 며느리 이야기로 변모되어 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버릇 고치기를 아들이 하고, 며느리의 역할이 없다. 둘째는 시어머니가 트집을 잡아 며느리를 쫓아내어 그 집으로 시집을 갔다. 하루는 어머니에게 밥을 드시라고 하였는데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며느리는, 집에 기르던 고양이에게 밥을 먹으라고 하여 안 나오자 즉시 죽였다. 깜짝 놀란 시어머니가 버릇을 고쳐서 며느리와 함께 살았다고 한다. 셋째는 조사자가 유도로 겨우 듣게 됐는데, 제보자가 끝에 시어머니가 못 됐다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두들겨 놓았다는 단편적인 이야기이다.

33) 『인정루』 4권, 89-165면.

34) 김 야코보스키 발레라(67, 남) 「금 물고기」 키르기스스탄 오쉬 시 고려인협회(소수민족 연합회) 사무실, 2019. 8. 28., 박 이반(82, 남) 「어부와 용녀」 카작 알마티 시, 카자흐대학 연구실, 2012. 7. 20., 강 발렌티나(68, 여) 「금 물고기 잡은 어부」 우즈벡 타슈켄트 주 지미뜨로프, 2015. 2. 12., 강 알렉스(68, 남) 「어부와 물고기」 카작, 우쉬토베 유나 32번지, 선교원 교리실 2016. 2. 19., 변 안나스라시아(82, 여) 「어부와 물고기」 카작, 키질오르다 아라수클라 47, 2016. 6. 29. 등이 있다.

그런데 『인정루』에 액자형으로 수용된 「농락하려는 훈장을 흔낸 시골 부인」, 「도둑질 잘하는 사위 구하기」, 「속이기 잘하는 사위 고르기」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과 비슷한 「유즙 한 근」 등의 설화 자료들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설화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인정루』에 수용된 이런 설화들은 중앙아시아에 전승된 고려인 설화를 수용하였다기보다, 작가가 한국이나 원동에서 어른들에게 들었던 것을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소설에 액자형으로 수용된 자료들이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설화 자료보다 한국적이고, 다양한 자료들과 내용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⁵⁾

3.3 변형적 내용의 수용

변형적 내용의 수용은 작가가 『인정루』의 서사구조를 진행시키기 위해 설화의 구조와 내용을 변형시킨 것이다.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소설의 뼈대를 이루는 작품들로, 설화를 길게 늘여 나누어 제시한 뒤 그 중간에 다른 설화들이나 내용을 삽입하여 서사구조를 진행시키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소설의 서사구조에 맞추어 수용한 설화의 내용을 변용하여 수용한 경우이다.

우선 소설의 뼈대를 이루는 설화들은 설화의 서사구조를 전체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설화의 구조가 소설의 서사구조에 맞추어 변개되어 있고, 중간에 다른 자료들을 삽입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읽히지 않을 수 있다. 즉 수용된 설화들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사이사이에 다른 설화나 속담과 잡가, 짧게 인용된 고전소설들을 삽입하여 내용을 변형하였다. 즉 다양한 설화와 자료들을 수용하여 뼈대 설화의 내용과 구조를 많이 변모시키면서 소설의 서사구조를 전개하고 있다.

예로, 전개 부분에서 수용된 뼈대를 이루는 설화는 「여자는 남」이다. 이 설화는 1권 160-177면, 230-235면, 411-451면, 2권 31-182면에 그 내용이 흩어져

35) 김현주, 「『인정루』의 '고담(古談)'에 나타난 한국 고전설화 변용양상에 관한 연구」, 참조.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소설의 서사구조를 보강하기 위해 중간에 다양한 설화, 소설, 잡가 등을 차용하고 있다. 이처럼 수용하거나 기술한 자료들은 「여자는 남」이란 내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소설에 수용된 「여자는 남」이란 설화는 앞에 언급한 페이지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이처럼 이 설화는 소설의 서사 전개를 진행하며 많이 변형되어 있어 설화 분량을 정확하게 제시하기 어렵다.

소설에서 「여자는 남」이란 설화는 「아내는 남」이라 해야 맞다. 한국에서 「여자는 남」이란 설화는 아내 또는 딸이 등장한다. 중앙아시아 고려인 설화에 등장하는 「여자는 남」이라고 하였을 때, 「딸은 남」이란 유형으로 친정아버지의 못자리를 빼앗아 간 딸 이야기와 친정아버지가 왔을 때 물고기의 머리를 준 딸 이야기가 있다.³⁶⁾ 그리고 「아내는 남」이란 이야기³⁷⁾는 담을 쌓을 때 놀다 죽은 이웃집의 딸을 담에 묻은 것과 동네의 우물에 죽은 아버지의 시신을 묻었다가 모자간에 싸움이 벌어져 탄로가 났다는 「우물 명당」이 있다. 이 중에 소설에 수용한 설화는 담을 쌓다가 잘못하여 죽인 이웃집 딸을 담에 넣고 쌓았다는 모티프와 비슷하다. 그런데 소설에 등장하는 「여자는 남」이란 설화는 모티프만 차용하였을 뿐, 자귀질을 하다가 죽인 아들의 친구를 강물에 버렸다고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 주인공 문용남은 굶아먹기 위해 달려든 평양 기생에게 이 잘못된

36) 전자인 명당 못자리 빼앗기는 조 위네나(71, 여, 카작 우쉬토베 칼리리나 18 자택, 2016. 2. 17.), 안 그리샤 한규예비치(80, 남, 카작 사라가치 와니하노바 투 14 자택, 2016. 6. 25.), 이복규의 책에서 있는 김 로자, 정 류드밀라(80, 여,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골바이예바 18동 5호 자택, 2020. 1. 5.), 임 류드밀라(77, 여, 키르기스스탄 추이 주 특목 고려인협회 사무실, 2020. 1. 8., 등이 구술하여 주었다. 후자인 물고기 대가리 드리키는 김 나르샤(73, 여,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두루수베코바 100, 78호 개인 집 2019. 8. 25., 비슈케크 키루핀스키야 150동 50호 자택, 2020. 1. 3.)가 2편, 임 류드밀라(77, 여, 추이 주 특목 고려인협회 사무실) 등이다.

37) 김봉화 로보이위(89, 여, 우즈벡 타쉬켄트 주 굴리스탄 자택, 2015. 2. 14.), 이봉선(85, 남, 우즈벡 타쉬켄트 주 시온고 마을 자택, 2015. 2. 16.), 정 류드밀라(80, 여,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골바이예바 18동 5호 자택, 2020. 1. 5.), 간 세면(87, 남, 키르기스스탄 추이 주 까라발따 키로바 60 자택, 2020. 1. 9.) 등이 있다.

행동의 비밀을 말하여 고역을 겪게 된다.

이처럼 뼈대를 이루는 설화로 위기 부분의 「상부할 팔자를 모면한 보쌈」이나 절정 부분의 「암행어사 담」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역시 모티프만 차용하여 서사구조를 전개시키고 있을 뿐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내용이 변용되어 있다.

한편 소설의 서사구조에 맞추어 수용한 구체적인 설화의 내용을 변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절정 부분에 「상전을 속여 먹은 하인」이나 「저승 갔다 온 이야기」 등이 있다. 후자는 고려인 설화 중에 가장 많이 조사되는 이야기의 하나이고, 전자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소설에 수용된 「상전을 속여 먹은 하인」은 한국 설화의 내용에 가깝다. 중앙아시아에 전승되는 이 이야기는 내용이 미약하고, 속이는 대상이 상전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친구를 속이는 경우도 있다.³⁸⁾ 그리고 대개 먹을 것을 빼앗아 먹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소설의 내용은 한국 설화의 마지막 부분인 상전의 가족들을 저승으로 보내기 위해 물속에 들어가는 장면만을 수용하고 있다. 이는 문용남이 김 부자에게 살아 나온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2-3차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기에, 돌아온 과정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설화들은 소설의 서사구조의 진행을 위하여 기존의 자료를 수용되어 있지만, 그대로 차용하기보다 설화를 변형하여 수용하고 있다. 때문에 설화는 원래의 모습보다 소설의 서사구조 진행의 필요성에 따라 변이 시키거나 변형 또는 일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38) 상전을 속인 경우는 김 마리아(78, 여, 우즈벡 나만간 주 노인회관, 2013, 2, 21.)와 김 라이샤 안드레이예나(우즈벡 타슈켄트 시 지완다르 구역 자택, 2015, 2, 13. : 중보 구비문학대계(우즈베키스탄), 리 웨라(카작 카라간다, 2016, 2, 22.), 김철봄(86, 남, 우즈벡 알마록 고려인회관, 2012, 10, 26.), 박 일리나(69, 여, 키르기스스탄 오쉬 시 러나나 거리 100 자택 2019, 8, 27.)가 있고, 친구로 나타난 경우는 허 발레리(67, 남, 키르기스스탄 추이 주 특목 고려인협회 사무실 2020, 1, 7.)의 구술이 있다.

4. 결말

본고는 문금동의 소설 『인정루』의 설화적 구성을 알아보고, 중양아시아 고려인 설화의 수용양상을 검토하였다. 『인정루』는 작가가 말하였듯이 조선의 많은 설화들을 수용하여 소설의 서사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사실 『인정루』는 하나의 설화집합군을 형성하는 듯 많은 설화들을 수용하고 있다.

소설 『인정루』를 구성하는 설화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소설의 서사구조의 뼈대를 이루는 설화 유형이다. 수용된 설화는 발단 부분의 「호환당한 부모님 원수 갚기」, 전개 부분의 「여자(아내)는 남」, 위기 부분의 「상부할 팔자를 모면할 보쌈」, 절정 부분의 「암행어사 담」이다. 둘째는, 소설의 서사구조를 진행하는데 수용한 설화이다. 이때 수용된 설화들은 작가가 소설의 서사구조에 맞게 설화의 일부만을 차용하거나, 일부를 삭제하고 변형하여 서술하였다. 그리하여 작가는 의도하는 소설의 서사구조 진행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는 독자나 작중인물에게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수용한 설화들이다. 이 유형의 설화들은 그 나름대로 서사전개에 의의를 가지고 있겠지만, 소설의 서사구조의 전개보다 흥미와 관심을 끌기 위해 액자형으로 수용되어 있다.

『인정루』에 수용된 중양아시아 고려인 설화의 양상은 그 연관성이 모호하다. 소설에 등장하는 설화들은 중양아시아 고려인 설화에서 일부만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중양아시아 고려인 설화의 수용 양상을 보면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현실적 방향으로 변형된 설화 자료들이 있다. 이들은 설화의 구조보다 고려인의 생존하는 삶의 현실이 반영된 형태로 내용이 변형되어 있다. 즉 설화의 전승보다는 형성 배경에서 사실적인 내용으로 변개한 유형이다. 둘째는 전통적 설화의 수용 양상으로, 주로 액자형으로 처리된 설화들이다. 이들의 역할은 소설에서 작중인물이나 독자에게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셋째, 변형적 내용이 수용된 설화들로, 작품의 서사 전개를 위하여

작가의 상상과 의도에 따라 설화를 나름대로 변형하여 전개하고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설화들은 그대로 수용한 것이 없다. 뼈대를 이룬 작품군이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한 액자형 설화도 작가의 의도에 따라 변형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작가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소설의 서사구조에 맞게 설화를 변형하여 수용하고 있다.

소설 『인정루』에 수용된 중앙아시아 고려인 설화의 양상을 검토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소설에 수용된 설화들을 중앙아시아 고려인 설화에서 일부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설화를 조사한 한계성에 비롯할 수 있다. 현재로는 작가가 『인정루』에 수용한 설화들을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훗날의 자료가 아니라, 1937년 강제이주 전 원동(극동)에 살면서 조선에서 이주한 조선인들에게 들었던 자료들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추후에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주제어 : 인정루, 문금동,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설화, 수용양상, 액자, 서사 구성.

<참고문헌>

- 문금동, 『인정루』 1~9권, 현대문학사, 2017.
- 이복규, 『중앙아시아 고려인 구전설화』, 집문당, 2008.
- 강현모, 중앙아시아 고려인 구비문학 조사자료, (2009-2020: 미간행)
- 김균태 외 3인, 『증보한국구비문학대계』, (해외편: 우즈베키스탄편, 카자흐스탄편)
2015. 2016. 이들은 gubi.aks.ac.kr/web/default.asp 탑재되어 있음.
- 강진구, 「제국을 향한 모델마이너리티(model minority)의 자기 고백」, 『현대문학의 연구』 제29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171 - 201면.
- 강현모, 「우즈베크 고려인 구비설화의 전승내용과 의미」, 『비교민속학』 51집, 비교민속학회, 2013, 147-160면.
- 고송무, 『쏘련의 한인들 : 고려사람』, 이론과 실천, 1990.
- 김종희 엮음,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국학자료원, 2010.
- 김현주, 「문금동 소설 『인정루』 연구」, 『한민족어문학』 77집, 한민족어문학회, 2017, 267-299면.
- 김현주, 「문금동의 자전적 소설 「아버지와 흥범도」 연구」, 『한민족어문학』 79집, 2018, 263-289면.
- 김현주, 「『인정루』의 ‘고담(古談)’에 나타난 한국 고전설화 변용양상에 관한 연구」, 『어문학』 142호, 한국어문학회, 2018, 255-280면.
- 김현주, 「문금동의 장편소설 『인정루』에 나타난 금기위반 양상에 관한 연구 - 과부(寡婦) 형상화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77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8, 113-138면.
- 장사선,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 월인, 2005.
- 타치아나 심비르체바·임경화, 「고려인 작가 문금동과 그의 장편소설 인정루 소개 및 시론적 고찰」, 『한국학연구』 제35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451-473면.

[Abstract]

Aspects of Acceptance of Korean folktales in Central Asia

- Centering on 『Injeongru』 by Moongeum-dong -

Kang, Hyeon-mo

This study analyzed the narrative composition of the Mungeum-dong(문금동) novel 『Injeongru(인정루)』 which was written by accepting many stories from Joseon(조선), and reviewed the acceptance patterns of Korean folktales in Central Asia. The composition of the folktales accepted in 『Injeongru』 is as follows. First, it is a type that forms the framework of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e novel. Second, it is a type that states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e novel by borrowing only a part of the folktales. Third, there is a type that has been accepted to arouse interest. The tales of Koreans in Central Asia accepted in 『Injeongru』 are as follows. First, material transformed in a realistic direction that reflects reality. Second, traditional structural material accepted as a frame illustration to arouse interest. Third, it is a material that the artist intentionally transformed and accepted. Only some of the tales of the Koreans in Central Asia accepted in the novel 『Injeongru』 can be found. The stories accepted by the author seems to be materials heard in Wondong(원동). This needs further investigation.

【Key words】 : 『Injeongru(인정루)』, Mun Geum-dong(문금동),
Central Asian Korean's Tales, receptive behavior,
framed, narrative composition

강현모

한남대학교 탈메이지 교양교육대학 국어국문학전공 전 강의교수
(34430) 대전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탈메이지 교양교육대학
국어국문학전공

전자우편: kanghyenmo@hanmail.net

이 논문은 2024년 2월 19일에 투고되었으며, 2024년 3월 8일에 심사 완료되어 3월 1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